



미켈레 끼아를로 랑게 네비올로 일 프린시페 DOCG

Michele Chiarlo Langhe Nebbiolo Il Principe DOCG

지역	이태리 > 피에몬테 > 랑게		
포도품종	네비올로 100%		
알코올	13%	용량	750ml
등급	DOC	시음 적정 온도	15-18°C
페어링 TIP	붉은 육류, 흰 육류, 부드러운 치즈		



제품설명



이 와인은 고품질 네비올로 와인을 생산하는 바르바레스코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를 원료로 하여 최소 12개월 동안 오크통에서 숙성한 후 병입된다.

이 와인의 이름인 'Il Principe(일 프린시페)'는 이탈리아어로 '왕자'란 뜻을 갖고 있다. 이는 이 와인과 같은 품종인 네비올로로 만드는 바를로를 '와인의 왕'이라 일컫고, 바르바레스코를 '와인의 여왕'이라 부르는 것을 모티브로 하여 지은 이름이다. '베 이비 바를로'라는 애칭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지어졌으며, 이 와인이 가진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을 내포하고 있다.

바이올렛을 비롯한 꽃 향기와 체리, 라즈베리 등 붉은 과일 그리고 민트와 같은 알싸한 허브 향이 부드럽게 와인을 감싸고 있다. 랑게 네비올로만의 탁월한 구조감과 부드러운 탄닌감이 인상적인 와인이다.

수상내역



2018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0점
 2018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0점
 2016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0점

와이너리



1950년대부터 포도밭을 일구고 와인을 양조해 온 미켈레 끼아를로는 가야, 안티노리와 같은 그란디 마르끼의 주요 일원이다. 처음으로 이탈리아 와인을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했던 1세대 수출 와이너리로서, 현재까지도 피에몬테 No.1 수출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를로, 바르바레스코, 바르베라 다스띠를 통틀어 유일하게 이들의 탑 싱글 빈야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부띠고 와이너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과 가격 대비 최고의 품질로 와인 애호가들의 니즈와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프리미엄 퀄리티의 피에몬테 와인을 생산하겠다는 일념 하에 이탈리아 DOC 법이 생기기도 이전에 자체적으로 현재 법규 수준 이상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시행해왔으며,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현대적인 양조 기술을 도입한 생산자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